



2015 하계 U대회 실사 D-5

최고의 도전, 최고의 감동실사

맞춤형 스포츠 인프라



광주시 관계자들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를 5일 앞둔 1일 FISU 실사단의 방문 예정지인 담양 체육관과 부대 시설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기존시설 보강·재활용 역점

## 23개 경기장 최적 환경 막바지 점검 선수단 최단거리 동선 확보에도 심혈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전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를 제시하겠다.”

국제대학스포츠 연맹(FISU) 현지 실사를 5일 앞둔 1일 광주시와 (재)2015광주하계U대회유치위원회는 FISU 실사에서 스포츠 인프라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 U대회 유치를 앞당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스테판버그(스웨덴) 단장을 비롯한 실사단이 이번 경기장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사단은 오는 6~9일 진행되는 실사에서 공식적인 환영만찬·영접 행사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인프라를 평가한다. 도착 첫날과 출국일인 9일을 빼고 이를 동안의 실사 일정이 경기장 시설 점검으로 짜여져 있다.

실사단이 이를 동안 돌아볼 체육 시설은 모두 23개로 광주시가 유치 신청서에 제시한 시설들이다. 광주시는 우선 U대회 정식종목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는 최적의 경기장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육상, 수영, 농구, 펜싱, 축구, 체조, 유도, 탁구, 테니스, 배구 등 U대회 10개 공식종목을 치를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 환경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실사단이 점검할 주요 시설은 2015년 대회 개최시 FISU 본부 호텔로 사용하게 될 호텔 신축현장과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월드컵경기장, 호남대, 동산대 등 대학 스포츠 시설, 영광, 장성, 나주, 목포, 화순, 순천, 담양, 광양 등 광주 인근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8개 지역 공공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시는 월드컵경기장은 이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치러내는 등 국제

적인 경기장으로 공인받은 시설인데다 이번에 실사에서 선보일 경기장들이 크고 작은 대회를 치른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을초부터 실사단 방문 대상 경기장의 전광판 등 경기 운영시설과 그라운드 컨디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또 FISU에 제시한 선택 종목인 태권도, 배드민턴, 골프, 핸드볼,양궁, 사격, 조정 등 경기장 점검에도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는 실사에서 기존 시설의 보강과 재활용에 높은 점수가 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09년 하계U대회 개최지인 세르비아에서 신규시설의 건립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FISU 내부에서는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수단이 경기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단 거리 동선을 확보하는 등 체육시설은 물론 주변 교통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실사단의 방문에 맞춰 경

기장에 실사단 환영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환영 분위기 조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사단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보유한 시설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FISU 실사단은 현지실사 보고서를 대회 개최지 표결에 참가하는 FISU집행위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FISU 집행위원들은 유치도시의 대회 개최역량을 평가한 실사단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오는 5월23일 최종 개최지를 표결로 결정한다.

FISU실사는 2015년 하계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사는 대만 타이베이(3일~5일)→광주→캐나다 에드먼턴(5월1일~4일)순으로 진행된다. 광주 실사단은 스테판버그 FISU부위원장(스웨덴)을 비롯 루사야노 카브랄(브라질), 말라베트 라레트(남아공), 케말 타머(터키),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등으로 구성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5+2 광역경제권' 국회 본회의 통과

# 예산·신규사업 영남권 편중

### “개정안 처리 방식”...민주당 책임론 부상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남권의 경제적 불균형이 고착화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남에 2개의 광역경제권을, 호남에 1개의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는 '5+2 광역경제권'을 명문화시킬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전북을 호남 광역경제권에서 분리하는 '5+3 광역경제권'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5+2 광역경제권 파장=정부는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예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당장 호남권과 영남권(대경권, 동남권)의 핵심 산업 및 사업 예산이 30조와 32조로 비슷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영남권은 신규사업이 주로 반영된 반면 호남권은 여수세계박람회 등 계속사업이 포함되면서 수치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5+2 광역경제권' 설정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가 정책의 기준

로 작용하면서 예산 배정 및 신규 국가 사업 등이 영남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5+2 광역경제권' 설정은 영남의 경제적 불균형을 넘어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부 정책에서도 '영남은 호남의 두 배'라는 공식으로 작용하면서 호남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등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책임론 부상=광역경제권 설정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법안심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디어 법 등을 둘러싸고 지난 2월 임시국회가 입법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시, 지정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

는 것은 물론 당론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3 광역경제권' 가능하나=민주당은 정부가 광역경제권 설정시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하는 '5+3 광역경제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1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당정협의와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5+3 광역경제권' 설정을 정부 측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에 5+3 광역경제권 설정을 요구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광역경제권 설정시 국회와 사전 협의한다는 것도 강제 규정인 아니라는 점에서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5+2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한 여론의 의지가 크다는 점에서 소수 야당인 민주당이 막아내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장승우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 사퇴

### 건강상 이유로...이달중 후임 위원장 선임

장승우(사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이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당분간 '선장'이 없는 채로 항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나면서 업무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는데다, 실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해는 만큼 3년여가 남은 박람회 준비에는 별다른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조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장 위원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병

가 중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영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고시(7회) 출신인 장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쌓아올린 ‘관록’을 바탕으로, 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중 앙과 지방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는 등 건강이 나빠져 결국 조직위원장을 맡은 지 1년 만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김병일 사무총장 지휘하에 박람회 업무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달 내로 후임 조직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에서는 누가 후임 위원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3년여가 남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쯤은 이루어질 운을 비롯해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한 민자유치가 잇따라 무산되는 등 박람회 성공에 대한 시민의 우려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선 정부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힘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THE 50TH ANNIVERSARY

#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

## 傳說

2009년 4월 25일(토) 오후 3시, 6시

죽도시민문화체육센터

문의: 020-6541-1508-0766